

## 대중가요 발성법 연구: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중심으로

조태선<sup>1\*</sup>

<sup>1</sup>청운대학교 방송음악과

### Research on Vocalization for Korean Pop Song: Case Foom The YongPhil Cho's "A Lady out of Window"

Tae-Seon Cho<sup>1\*</sup>

<sup>1</sup>Dept of BroadCasting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현재 우리가 듣고 즐기는 대중음악의 거의 대부분은 외국의 팝음악에서 비롯된 것 들 있다. 따라서 역사가 짧을뿐더러 그 분야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수들의 창법 즉 호흡이나 발성과 관련된 부분은 국악의 창과 성악 발성의 중간에서 그 어느 부분에도 속하지 않는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팝음악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우리와는 체격조건이 다른 그들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가수들은 부단히 애를 써야 했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때론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성대가 손상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였다. 가수 조용필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여 가창력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해법을 우리의 국악에서 찾았다. 그 대표적인곡이 바로 “창밖의 여자” 인데 이 노래는 조용필의 최고의 히트곡이자 가요발성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준 곡이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음악적인 배경 등을 통해 가요계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왜 그 노래가 당시에 획기적인 창법이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창밖의 여자” 의 곡의 흐름과 감정처리 방법, 테크닉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호흡과 발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표현되었는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Abstract** The Korean pop music people enjoy today is mostly based on the pop music from foreign countries. Therefore, not only is the history very short, but also not much research is done in the Korean pop music field. Especially in terms related with the singing method, in other words the breathing and vocalization of Korean singers, it is difficult to define where it is actually situated. To add a little, it seems as if it is swarming somewhere in the middl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singing methods and classical music vocalization.

As pop music made its way into Korea, Korean singers had to go through many trial and errors to sing the songs of singers that had different physical conditions. Singers getting vocal nodules because of excessive vocalization, was not a surprise at that time. Yongphil Jo, a Korean singer, wanted to overcome his limits and maximize his vocal abilities. He found the answer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One of his representative songs, "The lady out the window", is one of Jo's title songs and it is the song that made a turning point in the Korean pop music voc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circumstances of Korean pop music through the periodical and musical background of the past and find out why the song (The lady out the window) was such an epochal vocal method at that time. Moreover, this paper covers how the breathing and vocalization is expressed by analyzing the flow, the emotional expressions, and the techniques of "The lady out the window."

**Key Words** : Vocal, Singer, Pop Song

---

\*교신저자 : 조태선(entheos@korea.com)

접수일 09년 08월 10일

수정일 09년 10월 07일

게재확정일 09년 10월 14일

## 1. 서론

팝음악이 우리나라에 소개 된 것은 해방 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인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건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국내에 주둔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미 8군 쇼 무대는 국내 모든 음악인들이 서고 싶어 하는 꿈의 무대였다. 국내에는 팝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미군 부대마다 설치되어있는 클럽은 국내 음악인들에겐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였다. 따라서 60-70 년대에는 거의 모든 가수나 음악인들이 8군 무대를 통해서 데뷔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팝음악은 우리나라 가요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 이전에는 판소리나 단가 또는 일본 엔카에서 비롯되었다는 트로트가 대중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도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노래를 부르는 창법 또한 제한적이어서 판소리와 같은 국악 창법이나 성악스타일의 창법 뿐 이었다.

팝음악의 도입은 이러한 창법 즉 발생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Jazz, Blues, Rock & Roll, Soul 등은 각각의 장르마다 노래를 부르는 창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가수들에게 있어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흑인음악인 Jazz나 Soul, 백인들의 음악인 Blues나 Rock & Roll 등의 음악은 흑인이나 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의 동양인들이 부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체격이 크다는 것은 입이나 성대, 폐, 가슴 등의 발성기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과는 기본적인 성량이 확연히 차이가 나며, 호흡의 양도 우리가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의 노래를 아무리 똑같이 부르려고 해도 음정, 박자만 맞출 수 있을 뿐 노래의 느낌 즉 Feel 등은 똑같이 구사할 수가 없었다.

당시 미8군 무대에서 활동하던 대다수의 음악인들이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기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가수들도 있었지만 천부적으로 훌륭한 성대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에 한하였고, 많은 경우 무리한 연습으로 인해 성대가 손상되어 대화할 때의 목소리마저 변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결국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끼어 입으려고 한 것과 같은데 결과적으로 성대에 무리를 주게 되어 손상된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가수 조용필은 한국 남자들의 평균보다도 다소 작은 왜소한 체격이었으며, 가슴이 크고 입과 성대가 커야 큰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체형이었다. 흑

인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흑인들과 같은 소리, 창법을 구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해법을 우리의 국악에서 찾았다. 1979년에 발표되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창밖의 여자” 는 판소리와 같은 방법의 샤우팅 창법이 도입된 곡으로 가요발생법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판소리는 클래식의 성악과 같이 테너, 바리톤 등 일정 음역을 나누지 않는다. 또한 맑고 청아한 소리가 아닌 힘 있고 아주 거친 창법으로 노래한다. 그래서 그러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 배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고 거친 소리를 만들기 위해 목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소리 크고 단단해지며 그 힘을 바탕으로 원래 보다 넓은 음역의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용필의 노래 “창밖의 여자” 를 통해 호흡과 발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창법으로 노래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배경

#### 2.1.1 시대적 배경

1950년생인 조용필은 다니던 고등학교도 중도에 그만두고 1968년 데뷔한다. 곧바로 “에드킨즈” 란 밴드를 만들어 영등포 미군헌병대 클럽무대에서 연주를 시작했으며, 이후 “화이트핑거스”, “김트리오” 등의 밴드를 거치면서 문산, 의정부, 이태원 등 여러 미군 클럽에서 연주를 한다. '화이트 핑거스'는 당시, 실력 있는 밴드들의 집합소였던 이태원까지 진출한 인정받는 팀이었는데, 1년 반 동안의 활동은 집에서 형이 그를 찾아오는 것으로 마감됐다. 그러나 '화이트 핑거스'의 활동은 제임스 브라운, 월슨 피케트, 템테이션 등의 흑인음악에 심취하게 되었으며 그의 음악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그 당시 조용필은 가수라기보다는 기타연주자로 뛰어난 연주 실력을 선보였다. “김트리오” 시절엔 훗날 “사랑과 평화” 의 기타리스트였던 최이철과 투 기타시스템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의 밴드 구성은 보통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등의 4-5인조의 기본악기편성이거나 혹은 트럼펫, 색소폰 등의 브라스가 추가되어 7-8인조로 편성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악기 연주 없이 노래만 담당하는 싱어가 있기도 하였지만 여자 싱어들이 대부분이었고 남자들은 기타, 키보드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싱어와 악기연주를 병행할 경우 노래가 우선시되어 악기연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는데 조용필의 경우는 싱어를 담당하면서도 그 당시 국내최고의 수준의 기타리스트들과 경쟁할 정도의 기타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김트리오” 시절 앨범을 한 장 녹음하기도 했지만 발매되진 않았으며, 군 재대 이후 킹레코드사에서 앨범취입을 제안 받으며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발표된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마침 제일동포 모국방문 행사에 힘입어 부산에서부터 인기몰이를 시작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과거에 대마초 파동이 연예계를 휩쓸었을 때 대마초를 피웠던 전력이 드러나 활동을 금지 당하게 된다.

대마초 파동으로 방송활동이 금지되었던 4년간의 공백은 공교롭게도 조용필에게 기타 연주자가 아닌 진정한 가수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 무렵 그는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창법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자신의 작은 입과 성대로는 해결할 수 없는 파워풀한 성량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몸을 활용 하는 호흡과 발성법을 개발해 내며 국악 창법도 이시기에 익히게 된다.

그는 레이찰스, 제임스브라운, 스티비원더 등 흑인음악을 좋아했다. 같은 서양인 이라 해도 흑인가수들의 노래는 백인가수들 보다 성량이나 호흡의 양이 더욱 뛰어나다. 더구나 흑인 음악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리듬이 있다. 따라서

Feel을 내기 위한 테크닉도 상당히 다르다. 그는 그러한 흑인노래를 부르기 위해 우선 목소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작은 몸에서 큰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하게 된다. 복식호흡을 통해 최대한 몸속에서 끌어올려 소리를 내며 계속적으로 목을 혹사시켜 튼튼하게 만드는 훈련방법을 선택했다.

조용필의 노래 연습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리를 계속질러 목소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노래 연습을 할 때 쉬운 우리 가요보다는 팝 위주로 연습하고 또 원래의 키(Key)보다 두 키(Key) 정도 높게 연습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원리로 부르게 되면 아주 편하게 부를 수 있다는 원리로 매우 단순하다.

판소리에서 해법을 찾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판소리의 경우 작은 체구에서 순간적으로 밖으로 뿜어 내는 소리의 파워는 엄청나다. 그는 거기에 착안하여 국악의 창법을 연구하고 반복 훈련하여 본인의 창법에 대입시켰으며 그를 가요에 응용하여 표현하였다.

조용필이 국악 창법을 익히기 위해 명창에게 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는 스

스로 창이나 판소리를 흉내 내어 따라 부르면서 익힌 것이다. 당시 많은 가수들이 조용필의 영향으로 판소리 명창에게 사사를 받는 것이 대 유행이었는데 정작 조용필 자신은 정식으로 사사를 받은 적이 없고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왜곡되어진 것이다.

1987년 봄 본인이 지구레코드사로 앨범 녹음을 하고 있는 조용필을 찾아갔을 때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판소리 사사를 받았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혼자서 연습한거야. 대중가요하고 국악은 엄연히 소리가 다른데 정식으로 사사를 받으면 안 되지. 그렇게 했다가 소리가 창하는 것처럼 걸쭉하게 바뀌어 버리면 안 되거든. 그냥 소리를 따라해 보면서 우리 가요에 응용을 하는 것이 맞는 거야” .

### 2.1.2 음악적 배경

노래 “창밖의 여자”는 발성적인 측면 외에도 가요사에 있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1960년대 후반 외국의 팝음악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 가요계는 기존의 음악과 팝음악으로 양분화 되었다. 기존의 음악이란 트로트 장르의 음악을 말하며 팝음악이란 외국의 팝에서 영향을 받은 블루스, 포크, 락앤롤 등을 말한다. 요즘은 크로스오버나 퓨전이란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을 혼합하는 것을 금기시 하였다. 물론 그 이유는 원래의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트로트음악과 팝음악은 팬 층도 확연히 구별되었다. 트로트음악은 40,50대 이상의 중년들이 듣는 음악, 팝음악은 젊은이들이 듣는 음악으로 나누어지다 보니 방송이나 공연무대도 함께 서는 일이 극히 적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남진이나 나훈아와 같은 대스타들의 경우에 한하였다.

국내에 들어온 팝음악은 60년대 중,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소울이나 핑크와 같은 흑인음악이 주류를 이루다가 70년대 들어서는 통기타 열풍과 함께 포크음악이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 후 70년대 후반에는 대학가요제, 해변가요제, 젊은이의 가요제, 강변가요제등 대학생들의 젊은 음악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가요계발전엔 크게 기여 하였지만 반대로 전통트로트와의 음악적인 이질감은 점점 심화되었다.

이러한 이질감은 비단 멜로디나 노래가사 뿐만 아니라 노래창법과도 연관이 있다. 간드러지는 콧소리와 노래의 뒷부분을 꺾고 비트는 창법으로 부르는 트로트에 비해 포크음악이나 락음악은 목소리에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소리를 낸다. 따라서 가성이나 두성을 주로 사용하는 트로트와 달리 진성으로 노래하는 팝음악이 보다

더 친근하게 들렸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70년대 후반부까지 계속되었는데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는 이러한 음악적인 이질감을 융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창밖의 여자” 는 Em곡으로 템포 64정도의 Slow Go Go 형식의 4박자 곡이다. 이곡의 장르를 굳이 분석해 보자면 발라드 형식을 갖고 있지만 마이너(단조) 스타일에 가요적인 요소가 많아 트로트에도 가깝기 때문에 “트로트 발라드” 로 부를 수 있다. 이곡이 발표된 79년도는 대학가요 전성기였다. 때문에 발표 되는 곡들 대부분의 가사나 멜로디는 청소년층이나 젊은이들을 대상 이었다. 당시는 가요계의 음악적 편중 현상이 극심했던 관계로 트로트는 진부한 음악으로 폄하하기 까지도 했다.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는 그러한 음악들 사이에서 발라드와 트로트, 그리고 국악 창법과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우리가요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것이다.

조용필은 이 노래를 통해 새로운 창법을 선보이게 된다. 국악의 판소리나 창에서 시도되는 샤프트 창법이 바로 그것인데 그전까지는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창법으로 획기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그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서 팝과 트로트와 국악을 접목시킨 독특한 창법으로 우리 가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창법을 통해 연주인이 아닌 절대적인 가창력을 지닌 가수로서 탄생하게 되었다.

그전까지의 발생법, 즉 가창법은 다음과 같았다. 5-60년대 트로트는 주로 진성이 아닌 가성이나 두성으로 노래하였다. 이는 성악식의 발생법에서 비롯된 것인데 당시의 작곡가들 클래식을 공부했던 음악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 트로트 자체도 국악의 반대 개념인 서양음악으로 구분 지어 져고 성악식의 발생인 두성위주로 노래를 불렀다. 이미지, 백설희, 은방울자매 등과 같은 5, 60년대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모두 한결같이 피코리 같은 맑은 톤의 목소리로 다소 획일적으로 노래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오디션을 통해 작곡가에게 발탁되어 음반을 취입하기 전 충분한 연습을 거쳐 노래를 취입하였는데 가수의 주장 없이 작곡가의 의지대로만 앨범이 만들어지던 당시로서는 가수의 개성을 살리는 노력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은 70년대 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70년대에 들어서 몇몇 의식 있는 작곡가들에 의해 과거와는 다른 가수의 개성을 살리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정호희를 발탁한 이봉조가 그랬고 김추자를 발탁한 신중현, 해은이를 발탁한 길옥윤이 그들이다.

이러한 성악식의 발생법에서 탈피하기 시작한 것이 70년대 초반 밴드 음악이 인기를 끌면서 부터이다. 미8군 무대를 중심으로 밴드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락앤롤, 블루

스, 소울, 핑키 등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성악식의 발생이 아닌 진성발성과 샤프트 창법들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이러한 창법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무리한 시도로 보컬들의 성대가 결절되어 소리를 낼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흐름은 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포크음악 열풍으로 이어지게 된다. 포크음악의 도입은 가요계에 본격적으로 싱어송라이터라는 개념을 동반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가요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지만 반면 기본적인 호흡과 발생자체가 되지 않는 가수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싱어송라이터는 음악적인 형식이나 정해진 규칙이 없이 그저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곡을 만들고 또 만든 곡을 본인이 직접 부르는 형식이다. 따라서 음악의 개성과 다양성을 표현 하는 데는 최상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싱어송라이터들이 특별한 훈련 과정 없이 곡을 만들고 부르게 되면서 가요계에는 노래를 못하는 가수가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노래보다는 곡이나 가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그 이면에는 노래를 히트시키기 위해서는 뛰어난 노래실력보다 아이디어가 좋은 독특한 곡이 우선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가 가요사적으로 의미가 큰 것도 바로 그러한 점 때문이다. 조용필은 “창밖의 여자” 앨범을 통해 싱어송라이터로서 좋은 곡을 많이 발표 했을 뿐만 아니라 부단한 노력 끝에 훌륭한 창법을 개발해 냈기 때문이다.

## 2.2 분석

이 노래는 4/4 박자 Slow Go-Go형태의 느린 발라드곡이다. 대개의 경우 이런 곡들은 어쿠스틱 피아노와 대편성의 현악기를 사용하여 편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조용필은 5인조 밴드의 음원만을 사용하였다. 전주부에서는 전자피아노 Backing에 맞춰 신디사이저를 이용하여 스트링 소리를 구현하였고, 노래의 앞 1절 부분은 전자 피아노솔로에 맞추어 노래를 하였다. 후렴부에 들면서 드럼, 베이스, 기타가 연주되면서 All Section 이 이루어지면서 곡의 클라이막스를 표현했으며 다시 간주부에서는 Slow Hand 주법의 기타간주가 멜로디를 선이 굵게 연주하면서 다소 슬픈 듯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그 후 다시 후렴으로 이어져 격정적인 연주로 곡의 후반부를 연주하면서 끝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편곡스타일은 발라드 편곡의 정설이 되어 나중에 모든 발라드 스타일의 음악 편곡은 이러한 형식을 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느린 곡 보다는

창가에서 먼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손  
 돌아서 눈감으면 강물이 어라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서 먼  
 그대는 가로등되어 내 곁에 - 머무네  
 누가 사랑을 - 아픔답다 - 했는 가  
 누가 사랑을 - 아픔답다 - 했는 가 차라리  
 차라리 그대의 흰손으로 - 나를 잠들게 하라

빠른 곡이 편하다. 또한 표현해야 하는 음폭이 큰 노래보다는 작은 노래가 부르기 쉽다. 그리고 피아노나 기타 등 솔로악기에 맞춰 노래하는 것 보다는 대편성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것이 부르기가 편하다.

빠른 곡에 비해 느린 곡은 각 음의 길이가 그만큼 길기 때문에 각각의 음을 잘 유지 할 수 있는 컨트롤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음폭이 크게 되면 저음부에서 고음부까지 고루 소리를 내야하기 때문에 음정을 맞추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련이 덜되었을 경우 고음에서 정확한 소리를 내기도 힘들다. 무반주로 노래하는 것이 가장

힘들 듯이 피아노 반주 하나에 맞춰 노래하는 것은 그만큼 악기의 빈 공간을 본인의 노래와 호흡으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래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어 감정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용필은 이러한 어려움을 “창밖의 여자”를 통해 아주 적절히 잘 표현하였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밖의 여자” 가창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편의상 악보의 윗부분에 [A], [B], [C], [D] 등으로 나누어 놓았다

따라서 각 부분별 발성과 호흡 표현 방법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노래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A] - [F] 까지이며, 후반부는 [G] - [L] 이다. 악보에서도 보면 알수 있듯이 전반부는 도입부로서 사랑의 슬픈 마음을 “눈물”, “흰손”, “강물” 등으로 잔잔 하게 표현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아픔을 원망하는 듯한 느낌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발라드곡이 그렇듯 이 노래에서도 후반부에 곡의 느낌을 집중한 것을 볼 수 있다.

[A] 부분은 멜로디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점차적으로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부분에서 감정의 상황을 함께 표현했는데 첫 번째 마디 “창가에서 먼”에서는 푹 내 던지 듯이 부르다 두 번째 마디 “떠오르는” 부분에선 소리를 약간 감아올려 점점 더 고조되는 느낌을 표현하였다. [B] 부분의 “그대에” 는 소리를 몸속에서 끌어내어 밀어내는 느낌으로 첫 번째 줄의 감정을 마무리 하였다. 발성에 있어 [A] 와 [B] 의 차이점이라면 [A] 는 굳이 깊은 소리를 내려하지 않고 가볍게 처리한 반면 [B] 부분은 멜로디의 상승과 더불어 발성에

도 무게감을 주기위해 약간의 호흡을 섞었다는 점이다.

[C]와 [D]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 부분 모두 멜로디의 상행과 하행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의 [A]와 [B]에서는 멜로디의 점차적인 상행으로 원망스러운 감정을 표현했다면 [C]와 [D]는 멜로디의 상행과 하행을 반복함으로써 어쩔 수 없는, 포기하는 감정을 나타내었다. “돌아서 눈감으면”에서는 소리를 약간 당기는 듯 부르다 “강물이어라”에서는 목소리를 풀어주고, 마찬가지로 “한줄기 바람 되어” 부분도 약간 당기는 듯 소리를 내어주고 “거리에 서면”은 목소리를 툭 떨어뜨리는 기분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부름으로 인해 무언가 사랑에 미련이 남았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하는 절망감을 나타내었다.

[E]와 [F]에서는 이미 어쩔 수 없는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은 감정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그대는 가로등 되어”는 울소리듯 힘없이 부르고 “내 곁에 머무네” 부분은 발성에 호흡을 섞어 밀어내듯 불러 다소 진하게 표현하였다. 위와 같이 전반부는 특별한 호흡이나 발성의 표현 없이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G]부터는 곡의 후반부로 이곡의 후렴구에 해당한다. [G] [H]와 [I] [J]에서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의 가사가 두 번 반복 된다. 이 부분은 “창밖의 여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여 강조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들의 귀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G]부분의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는 서서히 호흡의 양을 늘려가며 발성을 무게감 있게 하여 감정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I]부분에서는 최대한도로 목소리를 쏟아내어 발성을 최고조로 이끌어 내었다. 이 부분에서 그의 가창력의 진가를 볼 수 있으며 국악의 샤우팅 창법 즉 가슴속에서 소리를 끌어내어 쏟아내는 조용필만의 창법이 표현되는 부분이다.

[I]의 “누가”는 끌어당기며 소리를 냈고, “사랑을”은 약간의 호흡과 함께 밀어내었고 “아름답다”에서 국악 창법을 응용하여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끌어냄과 동시에 액센트를 주었다. [J] 뒷부분 “차라리”와 [K]의 “차라리” 부분까지 앞의 감정을 연결시켰으며 “그대에 흰손으로”에서는 소리를 끌어내기 보다는 감정으로 처리함으로써 마지막 부분에 여운을 주었다. 일종에 포즈 부분으로 너무 과도하게 감정이 계속적으로 이입되다 보면 다소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에 다소 여운을 두었으며 이는 [L]의 “나를” 부분까지 지속되다가 “잠들게 하라”에서 또 한 번 가슴속에서 소리를 쏟아내는 조용필만의 창법으로 마무리 하게 된다.

조용필의 창법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첫째 복식호흡이 되어야 한다. 목소리에 호흡을 섞을 수 있는 능력은 가슴에서 소리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복식호흡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충분한 발성 훈련이 되어야 한다. 목이나 코소리만을 사용하는 발성법으로는 절대로 성량 있는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가슴통을 활용한 진성 발성 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표현력과 테크닉을 갖춰야 한다. 가수는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소리를 던지듯, 끌어올리듯, 이야기하듯, 쏟아내듯 등의 표현은 고도의 테크닉을 갖추지 않고는 절대 구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악발성의 응용이다. 이것이 조용필 창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고음부에서 가슴의 통 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진성으로 창을 하듯 쏟아내는 발성이 되어야 한다.

사실 가요를 국악창법으로만 부르게 되면 노래가 너무 거칠어진다. 따라서 조용필은 그러한 창법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사용함으로써 그 곡에 있어서의 포인트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아울러 노래를 상당히 돋보이게 하는 역할도 하였다.

### 3. 결론

가창력의 기본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소리를 크게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큰소리를 내면서도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한다. 또한 오래도록 소리를 내도 변하지 않는 튼튼한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가창력이 뛰어나다고 예기하며 모든 가수들이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다.

우리의 대중음악은 그 역사가 매우 짧다. 또한 현재 우리가 방송이나 매스 미디어를 통해 즐겨듣고 부르는 거의 모든 노래는 외국의 팝음악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다보니 체계적으로 연구할 시간도 부족했으며 우리와는 신체 구조가 많이 다른 음악, 즉 노래를 부르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들과 비슷한 소리를 내기위해 목소리를 과하게 쥐어짠다든지 무리하게 고음을 올리는 등...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 성대가 손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조용필은 우리가요의 새로운 발성법을 만들어 냈다. 작은 체격에서 큰소리를 낼 수 있고 또한 튼튼한 성대를 만들 수 있는 발성법을 찾아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창법을 본인의 노래 창밖의 여자에 적용시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창밖의 여자는 히트곡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수들의 발성에 있어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80년대 활동했던 가수들 중에 서울페밀리 위일청, 강승 모,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김건모, 박상민, 인순이, 이은미 등을 거쳐 오늘 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발성법은 체격이 작거나 입이 작아도 본인의 훈련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고, 큰 소리 뿐만 아니라 음역의 확장까지도 가능하게 해주었다. 보컬들에게 있어 이러한 발성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훈련과정을 거친 가수들이 많이 배출될 때 가요계는 발전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임진모, 우리대중음악의 큰 별들 민미디어, 2004.
- [2] 박준흠,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선, 2008.
- [3] 정혜윤, 그들은 한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 푸른숲, 2008.
- [4] 이종현, 조용필, 그대의 영혼을 빼앗고 싶다, 한국문원, 1998.
- [5] 홍호표, 조용필의 노래, 맹자의 마음 동아일보, 2008.
- [6] 임진모, 우리의 명반을 찾아서 @izm.co.kr 2004. 8.
- [7] 동서마당 [Success Partner] 2003년 10월호
- [8] 임진모, 한국 대중음악 스타 열전 ④, 신동아, 2009년 5월호
- [9] 임소혁, 음악가 조용필의 모든 것, 2004.03
- [10] 이현석, 이럴 땐 이런 음악, 돌출새김, 2004.06
- [11] 조태선, 대중음악의 호흡과 발성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원, 2005.
- [12] 문영일, 발성과 공명, 청우, 1991.
- [13] 남도현, 호흡과 발성, 군자출판사, 2007.
- [14] 정병욱, 한국의 판소리, 집문당, 1999.
- [15] 박승희, 가수가 되자, 녹진, 1994.
- [16] <http://www.choyongpil.net>

조 태 선(Tae-Seon Cho)

[종신회원]



- 1983년 10월 : MBC대학가요제 금상 수상
- 1988년 3월 : Solo 1집앨범 발표
- 1995년 12월 : 뮤지컬 왕과나 음악감독(서울 예술의전당공연)
- 2002년 4월 : TJB 음악토크쇼 음악이머무는밤 MC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방송음악과 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싱어송라이터